

스코틀랜드, 거부 의사 없는 모든 국민 장기기증 추진

스코틀랜드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으로 분류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추진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이들만 장기기증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에 새 옵트-아웃 시스템을 채택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이끄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1년 전 장기기증 관련 옵트-아웃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옵트-아웃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이들의 장기는 기증 대상이 된다. 생전에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족이나 친척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가 기증되도록 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중 홍보 활동을 통해 새 시스템을 널리 알린 뒤 2020년 4월 이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같은 옵트-아웃 시스템이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에서 거주 1년 이내인 자, 16세 이하, 명확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이같은 옵트-아웃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서 당나귀 절도·밀도축 극성

아프리카 전역의 당나귀들이 절도와 밀도축 등 범죄의 대상이 돼 수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인들이 농사에 이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운반수단으로 이용하는 귀중한 동물 당나귀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당나귀 가죽을 삶아 얻는 젤라틴에 대한 중국인들의 끝없는 수요 때문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어자오라고 불리는 당나귀 가죽을 삶아 만드는 젤라틴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 어자오는 kg당 700달러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중국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년 간 케냐의 당나귀 숫자는 180만 마리에서 120만 마리로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케냐에서는 지금도 공식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만 하루 1,000마리의 당나귀



▲ 홍콩의 한 건강식품 판매점에 붙어 있는 '어자오' 판매 광고

가 어자오 생산을 위한 가죽을 얻기 위해 도축되고 있다. 그러나 밀도축되는 당나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당나귀 밀도축이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케냐에서 당나귀 씨가 마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는 케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자오의 원료로 당나귀 가죽을 파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당나귀 절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나귀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 농사나 짐 운반 등에 소중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나귀를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나귀를 잃은 많은 농부들이 어자오 생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자오 생산을 위한 당나귀 가죽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일, 성인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2022년부터

일본에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스1'이 이날 NHK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 나이를 20세에서 변경한 것은 1876년 이후 약 140여년 만이다.

법률 개정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18, 19세는 성년으로서 인정받아 의사나 법무사 등 자격 취득의 대상이 된다. 부모 동의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성인 연령 하향과 함께 22개 관련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 중에는 성별 변경 신청도 포함됐다. 기존에 16세였던 여성의 결혼 하한 연령을 18세로 높여 남녀 결혼 하한 연령을 같게 맞추는 안도 담겼다. 다만 음주나 흡연, 경마와 경륜 등 4개 공영 도박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0세 미만까지 금지될 방침이다.

NHK는 이번 결정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자 성인 연령을 낮춰 젊은 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